

지속 가능한 예술 지원과 후원의 선순환을 꿈꾸며

서른 중반. 대기업이라는 조직 속에 있었다면 과장급, 시쳇말로 '날아다닐' 연차에 과감히 재단을 설립한 젊은 이사장이 있다. 정승우 유중재단 이사장 겸 유중아트센터 대표가 그 주인공. 지(知)·덕(德)·체(體)를 겸비한 예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예술지원사업의 선순환을 꿈꾼다는 정 이사장의 미래 비전이 의미 있는 메시지로 다가오는 때다.

프로필 한 장이 한 사람에 대한 일종의 '선입견'을 갖게 할 때가 있다. 어찌됐던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먼저 만나는 첫 대면이 그 한 장이니, 그것을 받아든 사람은 나름대로 이미지를 그리게 마련이다. 정승우 유중재단 이사장의 프로필을 받았을 때는 일단 의구심부터 들었다. 명문대 법대 출신으로 법조인의 길 대신 대기업에 입사했고, 남들은 은퇴 즈음에 생각한다는 재단을 서른다섯에 설립했기 때문이다.

정 이사장을 만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개관했다는 서울 방배동의 유중아트센터를 찾았다. 유중재단의 터전이랄 수 있는 유중아트센터 1층에는 뜻밖에도 '카페 드 유중'이라는 공간이 자리 잡고 있었다. 때를 놓친 점심의 허기도 달랠 겸 카페로 들어섰다. 마치 숲속에 들어온 듯 코끝이 시원해지는 카페에서는 웰빙 스타일 샌드위치와 음료가 입을 즐겁게 해줬고, 음료를 즐기는 사이사이에 시선을 옮기는 공간마다 신예작가들의 미술작품을 볼 수 있었다. 매주 금요일에는 라이브 콘서트도 마련한다고 하니 음악과 미술, 건강식의 공존이 매우 이색적이다.

살의 롤모델 외조부의 뜻을 잇다

카페를 나와 2층 아트홀에 오르자 정 이사장의 모습이 보였다. 준수하고 스마트한 인상의 그는 건물 곳곳에서 코끝을 자극하는 편백나무 피톤치드 성분처럼 프레시하다. 가장 궁금했던 것으로 대화의 물꼬를 텄다.

법학을 전공하고 법조인의 길 대신 대기업에 입사하셨죠. 한창 잘나갈 연차에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사법고시에 세 번 떨어지고 나서 법조인의 길은 포기했습니다.(웃음) 대학 졸업 전이었던 2003년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첫 단추를 끼웠던 곳이 삼미그룹의 삼미재단 사무국이었어요. 희귀 난치병 어린이 돕기, 초·중·고생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회사업 등의 업무를 하면서 재단 운영에 대한 기본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직장이 대우조선이었어요. 감사실에서 근무하다가 계약관리실로 발령을 받았죠. 원래 그 자리는 시니어급이 가는 자리인데 당시에 법학 전공에 외국어가 가능한 젊은 피수혈이 필요할 때라 차출을 당했어요.(웃음) 외국인 선주들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옥포외국인학교 운영을 담당하면서 학교 운영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됐죠. 재단 운영과 학교 운영,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한 경험 이 이후 유중재단을 설립하는 데 자신감을 갖게 한 배경이랄 수 있어요. 경험의 시너지라고 할까요."

보통 재단은 퇴직을 앞둔 분들이 고려하는 세컨드 라이프입니다. 서른 중반이면 너무 이른 것 아닌가요.

"솔직히 그 문제 때문에 집안에서 반대도 했어요. 아직 경험도 적는데 재단 운영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를 많이 하셨죠. 사실 재단이라는 곳이 돈을 벌기보다는 쓰는 곳이잖습니까.(웃음) 하지만 40~50대에 시작하면 너무 늦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서툴지만 차라리 일찍 시작해서 좀 더 부지런히 움직이면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집안을 설득했죠. 다행히 평소 애를 많이 들었던 지인들이 이사진으로 도움을 줬어요. 소에 뜻을 같이하던 지인들이 이사진으로 도움을 줬어요. 오래전부터 재단 설립을 지인들과 함께 계획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단 형태는 아니었고요, 평소 좋은 일 해보자고 뭉쳤던 지인 다섯 명이 있어요. 지난해 1월 1일에 제가 그분들을 저희 집으로 불러 모았죠. 1월 1일에 저희 집으로 오라고 하니까 다들 신년회하